

# 특별한 영화들 유혹 설날엔 광주극장으로



## ‘해시태그 시그네’ ‘가가린’ 등 다채 감독과의 만남... 해외포스터 증정도

다가오는 설날, 가족들과 광주극장에서 영화 한편 관람해보는 건 어떨까.

광주극장이 설날을 맞이해 다채로운 영화와 감독과의 만남 등을 준비했다.

먼저 15일에는 알약 하나로 세상과 남자친구의 관심을 독차지하려 한 어설플 관중 ‘시그네’의 연로맨틱 코메디 ‘해시태그 시그네’가 상영된다. 카페 바리스타로 살아가던 시그네의 남자친구 토마스는 행위 예술가로 매거진 표지를 장식한다. 토마스가 점점 유명해지자 소외감을 느낀 시그네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정체불명의 알약으로 남자친구의 사랑과 세간의 관심까지 독차지하려 한다. SNS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거리낌 없고 스스로를 관중이라고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 주인공 시그네를 만나볼 수 있다.

또 19일에는 감독 이상일과 ‘기생충’의 촬영을 맡은 흥경표가 협연한 ‘유랑의 달’이 상영된다. 영화는 유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낙인찍힌 두 사람이 15년 후 재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26일에는 돌봄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를 상영한다. 지난 12일 개봉한 영화는 아이들의 일상을 돌보고 교육의 경계에서 지켜내고 있는 돌봄 노동자를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열, 황다운 감독은 두 아이가 다니는 마을 ‘방과후’를 3년간 근접 거리에서 지켜보며 이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25일 오후 7시 20분 영화 상영 이후에는 박홍열 감독과 출연진 돌봄 노동자가 참석할 가운데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되었다.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평범한 삶을 원하는 무녀의 이야기를 다룬 ‘시간을 꿈꾸는 소녀’는 28일 상영된다. 4살 때부터 꿈을 통해 사람들의 미래를 보며 무녀가 될 운명을 타고난 주인공 수진이의 이야기로 주인공



‘3000년만의 기다림’



‘유랑의 달’

공의 선택과 삶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다. 박혁지 감독의 네 번째 장편영화이며 제35회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IDFA) 국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다. 28일 오후 3시에는 영화 상영 후 박혁지 감독과 관객들이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상영 중인 ‘3000년만의 기다림’도 설날 연휴 중 만나볼 수 있다. ‘설국열차’와 ‘육자’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 틸다 스윈튼이 세상 모든 이야기에 통달한 서사학자 알리테아를 맡는다. 알리테아는 우연히 소원을 이뤄주는 정령 지니(이드리스 엘바)를 깨워내고 지니는 알리테아에게 오랫동안 바라는 소원 3가지를 말하라고 한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연출한 조지 밀러 감독 7년만의 신작으로 부커 상 수상자인 영국 소설가 바이

어트의 신화 단편집 ‘나이트게일 눈 속의 정령’을 영화화했다. 영화는 제75회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어른들을 위한 알라딘’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개봉 한달차를 맞이한 ‘가가린’과 ‘페르시아어 수업’도 설 연휴 기간까지 장기 상영된다. 영화 ‘가가린’은 가가린 육상에서 하늘을 보며 우주비행사를 꿈꾸던 10대 소년 유리가 가가린 주택단지의 철거가 결정되자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1만 관객을 돌파한 ‘페르시아어 수업’은 페르시아어를 배우기 원하는 독일군 장교 ‘코흐’와 살기 위해 페르시아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유대인 ‘질’의 이야기다.

한편 광주극장은 현재 상영작에 한해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해외 포스터를 증정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ACC 인형음악극 ‘깁깁나무’ 서울 무대

14~15일 노원어린이극장서 공연



어린이 인형음악극 ‘깁깁나무’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파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인형 공 공이를 잃어버린다. 친구들과 공공이를 찾아 나서며 파니는 생명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인형음악극 ‘깁깁나무’는 섬세한 목각인형을 전문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어린이 인형 음악극이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ACC 인형음악극 ‘깁깁나무’가 14~15일 서울 공연에 나선다. ACC 재단은 ‘깁

깁나무’가 노원어린이극장의 2023년 첫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탄탄한 스토리와 영상, 음악 등이 조화롭게 결합된 인형극이다. 특히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을 결합해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공연 예매 및 문의는 노원문화재단과 인터넷파크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601-466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일본 시 전문지 ‘시인회의’ 한국편에 광주 김준태·문병란 시인 다뤄 눈길

일본의 시인회의가 발행하는 시 전문지 ‘시인회의’가 2023년 2월호(725호·사진)의 특집 ‘해외 시’ 한국 편에 이상화 시인 등과 함께 문병란, 김준태 시인을 다뤄 눈길을 끈다.

1963년 창립 후 61년을 맞은 ‘시인회의’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인들의 모임으로 월간지 ‘시인회의’를 발행하며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년 2월호에서 ‘조선 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시인들’라는 제목으로 광주의 시인들을 주목한 것.

한국편을 담당할 집필자는 줄곧 한일문학 교류에 애써오며 K문학 소개에 앞장서 온 사가와 아키 시인. 그는 일본현대시인회(회원 1047명)의 의장직을 맡아 수행 중인 중진 시인이다.

사가와 시인은 도입부에서 이태원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 남북분단으로 군 복무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북한 연구자 12명이 쓴 ‘민족 저항 시인의 동아시아적 접근’(김정훈 편역, 소명출판)이 출간된 사실도 거론했다.



사가와 시인은 각 집필자의 논고를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김준태 시인에 대한 언급에서는 시인이 일본어판 시집에서 ‘쌍둥이 활아버지의 노래’를 소개하며 ‘남북분단 극복에 대한 염원을 유연하게 노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란 시인에 대해서는 “30년 넘는 시집을 남겼다.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를 썼다. 시 ‘직녀에게’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표작 ‘직녀에게’를 인용했다.

아울러 사가와 시인은 결론에서 “이들과 같은 시인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조선 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 민족 저항시인에 대한 논고를 읽고 군비증강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를 위한 길을 걸어야 함을 느낀다”고 부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흑산의 섬을 따라 영산강을 만나다’ 전 4월 30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예로부터 영산강과 흑산도의 관계는 긴밀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영산(樂山)이란 명칭은 흑산도에 설치되었던 ‘영산현’이란 이름에서 출발한다. 고려 때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 사람들이 왜구를 피해 나주 근처의 포구에 정착했는데 이들이 개척한 포구를 영산포(樂山浦)라 한 데서 영산강의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산강 물길을 따라 내려 들녘과 서남해 연안, 다도해로 열려진 바닷길은 남도지역의 생태·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생물의 보고(寶庫)다.

물길을 따라 영산강에서 흑산도까지 호남권 생물자

원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협업으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환경부 산하기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사장 조중희)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단장 박종덕)이 기획한 ‘흑산의 섬을 따라 영산강을 만나다’ 전이 12일 영산강문화관에서 개막했다. <사진>

‘흑산의 섬생물을 기록하다’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전시물을 제공받아 진행되는 순회전시로 흑산의 섬·연안 생물자원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영산강 생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영산강의 생물들을 그리다’를 연계 전시로 기획했다. 영산강부터 섬·연안 생물종까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밀한 관찰은 어려웠던 생물들을 표본과 세밀화로 살펴보고, 생물자원의 활용 사례를 함께 선보이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4월 30일까지 약 4달간 진행되며(월요일 휴관), 전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영산강문화관 061-335-086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최영미, 고은 시인 문단 복귀에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 비판

2018년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는 고은 시인이 최근 사과없이 문단에 복귀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최 시인은 앞서 고은 시인이 실천문학사를 통해 시집 ‘무의 노래’와 ‘개나리 시인과의 대화를 엮은 대답집

‘고은과의 대화’를 출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허망하다. 지금 내 심정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 시인은 2017년 계간 ‘황해문화’에 발표한 시 ‘괴물’에서 고은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했다. 이듬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문단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란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후 고은 시인은 최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았다.

고은 시인의 사과 없는 문단 복귀에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온라인 문학전문지 뉴스페이퍼가 지난 7-8일 문인 172명과 독자 18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은 문단 복귀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복귀 반대는 1973명(99.2%)에 달했다. /연합뉴스

## 도시가 품은 역사·문화, 책으로 만나다

ACC 도서추천서비스 50여권 전시...2월 27일까지

서울, 도쿄, 뭄바이... 위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들이다. 도시는 정치적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총체적 삶과 역사가 집약된 곳이다.

특히 도시에는 당대를 대표하는 많은 건축들이 자리하며 이 같은 건축은 많은 이들에게 인문적 상상력과 예술적 영감을 선사한다.

도시가 품은 역사와 문화로 아시아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책으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ACC 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북클레이션) 새해 첫 주제를 ‘아시아 도시와 건축’으로 정했다. ACC는 아시아 도시와 건축 전반을 다룬 문화예술 도서 50여 권을 오는 2월 27일까지 도서관 이벤트 홀에서 전시한다.

‘서울 아버지즘’, ‘도쿄 인문기행’, ‘뭄바



이: 사물을 통해 본 도시’는 아시아 대표 도시가 전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동아시아 도시 이야기’와 ‘도시로 보는 이슬람 문화’도 도시에 담긴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밖에 도시 건축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한국현대건축 100년’과 도시의 풍경 속에서 일상을 접하는 ‘도시의 36가지 표정’도 이번 전시에 올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